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 지방세 징수 고삐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가택수색 실시해 현장 압류 등 강력 조치 계획

광주시는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도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전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한 후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고 귀금속, 명화, 서화 등은 동산 압류 후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195억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압

류물건 공매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체납세 독촉장 조기 발송과 10년 이상 된 근저당권 재정비를 통한 체납정산, 임차보증금 압류,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부터 5개 자치구별로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정리반은 소액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

업무 처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과 함께 사회복지 부서를 연계해 복지혜택 상담을 받으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재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밀린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고교 2학기 첫 등교수업

14일 오전 광주 남구 서진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개학 한달여만에 첫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영림단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나머지 2개단 전문 교육·컨설팅 지속 지원 등 적극행정”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최근 관리소내 회의실에서 국유림 영림단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했다. 다음사회적협동조합, 국유림관리소 소속 영림단 및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영림단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것이다. 국유림 영림단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단순 숲가꾸기 위주의 사업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산림교육사업 및 숲체험사업, 임산물 가

공 유통까지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관리소에 소속된 6개 국유림영림단 중 올해까지 4개 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2개단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한 2개 국유림영림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기태 전남도의원 “순천 교통중심지 기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 환영

새롭게 탄생하게 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순천지역에 조성된다면, 순천의 위상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기대된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14일 “코레일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하고, 통합청사를 현재 전남본부가 위치한 순천으로 결정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고 과거 순천지방철도정이 위치해 있었던 철도중심도시로, 여수해안박람회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계기로 KTX가 운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철도사업 중추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통합청사 조성으로 약 1천명의 종사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통합청사 결정에 대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의원은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정과 물류비절감으로 농민들의 생산·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철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계림8구역 2300세대 입주 ‘인구 10만 회복’

광주 동구가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23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전입 주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축하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림8구역은 광주에서 가장 큰 초대형단지로서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10만 명 선을 단숨에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인구 ‘10만 명 회복’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재개발 사업까지 마무리되는 2024년이면 13만 명은 순조롭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2336세대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모두 537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간 동안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 1명을 파견해 바쁜 업무처리를 돕고 주 3회(월·수·금) ‘찾아가는 지방세상담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서구, 전자출입명부(KI-Pass) 본격 시행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모든 공공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구는 그동안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수기명부를 작성해 왔으나 허위정보 기재, 개인정보 노출, 펜을 통한 교차감염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은 구청,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총 34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개인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증을 받으면 출입할 수 있다.

남구, 책 읽고 소품 만들고 ‘집콕 독후키트’ 운영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가정에서 책을 읽고 각종 소품을 만드는 비대면 방식 ‘집콕 독후키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운영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1~3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콕 독후키트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12월 27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차수별 선정도서를 읽고난 뒤 해당 책과 관련한 전통자수 송편 바구니를 비롯해 훈민정음 조맹등, 명화를 재구성한 에코백, 클레이 곤충 메모 집게, LED 거울트리를 만드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각 차수별 도서는 ‘추석에도 세배할래요’, ‘세종대왕이 뽀얏다’, ‘반센트 반고흐’, ‘이토록 멋진 곤충’, ‘마르케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이다.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광주 북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 3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등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생활기반사업으로 도로 확장·포장 2건, 저수지 보수·보강 1건 환경문화사업으로 누리길 2건 등 총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환경문화사업은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평촌반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지가 총효동과 인접해있어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광산구, 유류 주차장 공유하면 시설 개선해준다

광주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2020 하반기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가시설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공유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마련된 것. 11월 30일까지가 접수 기한인 이번 공모는, 유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소 5면을, 1일 연속 7시간과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 2년 이상 개방하는 시설에, 광산구는 최대 1억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형의 안전 →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병의원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율리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송로건강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